

2) 남도잡가(南道雜歌)

잡가란 전통사회에서 전승되어온 직업 예능인들의 노래, 즉 기생·사당패·소리꾼과 같은 전문가들이 긴 사설을 기교적인 음악어법으로 부르는 노래이다. 이보다 단순한 아마추어들의 민요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민요는 별도의 전승과정이 없이 구전되지만 잡가는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과정을 거쳐 이어오고 있다. 대개 민요는 후렴에 붙는 짧은 사설을 정해진 선율에 반복하는 유편형태가 많은 데 비하여 잡가는 긴 사설을 통절형태로 노래하는 것이 보통이고, 남도잡가는 서서 노래하는 선소리(立唱)의 형태이다.

남도잡가는 서서 노래하기 때문에 남도입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며, 일반인들은 민요와 구분하지 않는다. 남도잡가는 호남지역의 전문 예능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데, 판소리 장르에 치중한 탓인지 경기잡가나 서도잡가에 비하여 잡가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보렴, 화초사거리,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흥타령, 개고리타령을 연가곡처럼 이어 부르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남도잡가 중에서 잘 알려진 노래는 역시 ‘육자배기’이다. 평안도 소리 가운데 첫번째로 꼽는 것이 ‘수심가’라면, 전라도는 육자배기이다. 이는 남도소리조로서 전라도 소리의 특징을 고루 지닌데다가 가락이 아름답고 가사도 정교한 시로 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본디 콩밭을 매는 아낙네나, 김매는 농부들, 나무꾼들이 부르던 소박한 소리였으나 소리꾼들에 의해 가락과 가사가 다듬어지고 가꾸어져 세련되어졌다고 한다.

육자배기란 이름은 이 소리가 여섯박 장단으로 되었다 하여 붙은 ‘육자박’이라는 말이 변한 것이라고 전해지지만 분명하지 않다. 가사는 입을 그리워하는 서정적인 시가 많고, 형식도 시조시로 된 경우가 많다. 소리의 형식은 절로 나누어지는 장절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장절 끝 마루의 끝을 제창으로 ‘거나 헤’로 맺는다. 느린 6박자로 되어 있는 진양장단에 맞는데, 판소리의 진양소리 대목처럼 맺고 풀어주는 장단을 치지 않고 ‘더웅, 구웅, 구웅, 구웅, 따드락, 따악딱’ 하고 이어서 친다. 가락의 구성음은 남도민요의 대표적인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매우 처량하고 정겨운 느낌을 주는데, 시김새가 정교하고 가락이 어려워서 아무나 쉽게 부르지 못한다.

자진 육자배기는 3박자인 삼장개비(빠른 진양조 장단이라고도 함) 장단으로 되어 있다. 따로 떼어 부르는 경우는 드물고 긴 육자배기를 부르고 나서 이어 부른다. 가락과 가사는 긴 육자배기의 것과 같으나 조금 빠르며 흥겹고 마루마다 소리꾼들이 돌아가며 부른다.

(육자배기) 거나, 헤
사람이 살면은 몇 백년이나 사드란 말이나
죽엄에 들어서 노소가 있느냐
살어서 생전시에 각기 맘대로 놀거나, 헤

내정은 청산이요 임의 정은 또한 녹수로구나
녹수야 흐르건만 청산이야 변할소나
아마도 녹수가 청산을 못 잊어 휘휘 감돌아들거나, 헤

(자진 육자배기) 허허야 허허야 이히 이히이 네로구나
허허 어루 산 이로거나, 헤

청석골 좁은 길에
머시매 가지내 돌이 서로 만나 섬섬옥수를 부여잡고
에야라 놓아라 아서라 놓아라 응
에라 놓아라 남이 본다
죽었으면 영영 죽었지 한번 잡은 손길을 놓을 수 있나
이 당장 살인이 난다 하여도 나는 못 놓겠구나, 헤

밤 적적 삼경인데 곳은 비 오동은 휘날리고
적막한 빈방 안에 앉으나 누우나 두루 생각다가
생각에 겨워서 수심이로구나
수심이 진하야 심중에 붙는 불은 울 같은 역수 장마라도 막무가넬거나, 헤